

‘전공의 이탈’에 전면허용 환자 상태 파악 등 한계 有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비대면 원격진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 5개월이 다 되고 있다. 이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됨에 따라 의료 현장이 언제 정상화될지 요원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해 환자와 보호자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을 통해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에 대해 알아본다.

◇'반복 처방' 환자 등 일부 대상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의 한 부분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의 영상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원격의료 안에 원격진료 즉 비대면 진료,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진단(혈당·혈압·초음파·심전도·엑스레이 등 진단기기 이용), 원격 협진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원격진료는 의사를 만

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통신기기 등을 통해 진료를 보고 그에 따른 의학적 처치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이에 병·의원들은 현재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오는 것이 어려운 이들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반복되는 처방을 받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다. 또 거동이 불가능해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이들의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대신 병·의원을 찾을 경우 전화로 간단한 문진 후 약 처방을 하고 있다. 다만 '전면 허용'과 관련, 실제 진료 현장에

일부 병·의원서 반복 처방 환자들 대상 시행 중 편리성 등에 요구 증가 불구 정확성 등 불확실

는 여러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 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감염 예방·만성환자에도 도움 등 효과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코로나 확산 해도가 병원이거나 응급실에 다녀가기만 해도 응급실, 병원 등을 폐쇄하던 상황이었기에 감염병 전염을 막기 위해 시행한 비대면 원격진료였다.

또 원격진료는 만성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는데, 일반 병

·의원에서는 한달 또는 두달,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반년 이상 약만 처방해 가는 환자들이 있다.

이들의 혈압이나 혈당 변동성을 수개월에 한 번 진료를 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환자 본인들이 집에서 혈압 및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기록이 병·의원에 연계되면 진료 시 약 처방 및 검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현재는 일부 의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에 한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파악·미약류 오남용 방지 등 한계

원격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촉진이나 청진을 해야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보다 정확할 수 있다. 기술 발달로 인한 편리성 때문에 원격진료가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나, 진료의 정확성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그리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등의 문제는 기술 발전 대비 현장에서 원격진료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미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가 중요하는데, 이런 종류의 약들은 앞으로도 원격진료로 처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기수희 기자

전남대병원, 교육부 경영 평가 '4년 연속 A등급'

국립대병원 유일 7년 연속 무차입 운영 '재무구조 건전' 호평 연구사업 유례없는 만점... '연구도 잘하는 국립대병원' 입증

전남대학교병원이 교육부 주관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14곳 등 기타공공기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점수 없이 등급만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은 교육부 소관 전체 기타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된 경영 평가에서 2015-2017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평가하지 않은 2019년을 제외한 2020-2023년 까지 4년 연속 A등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경영 잘하는 국립대병원임을 증명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경영·행정·의료·회계·노무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 실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전남대병원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연구사업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비계량 14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국립대병원 최고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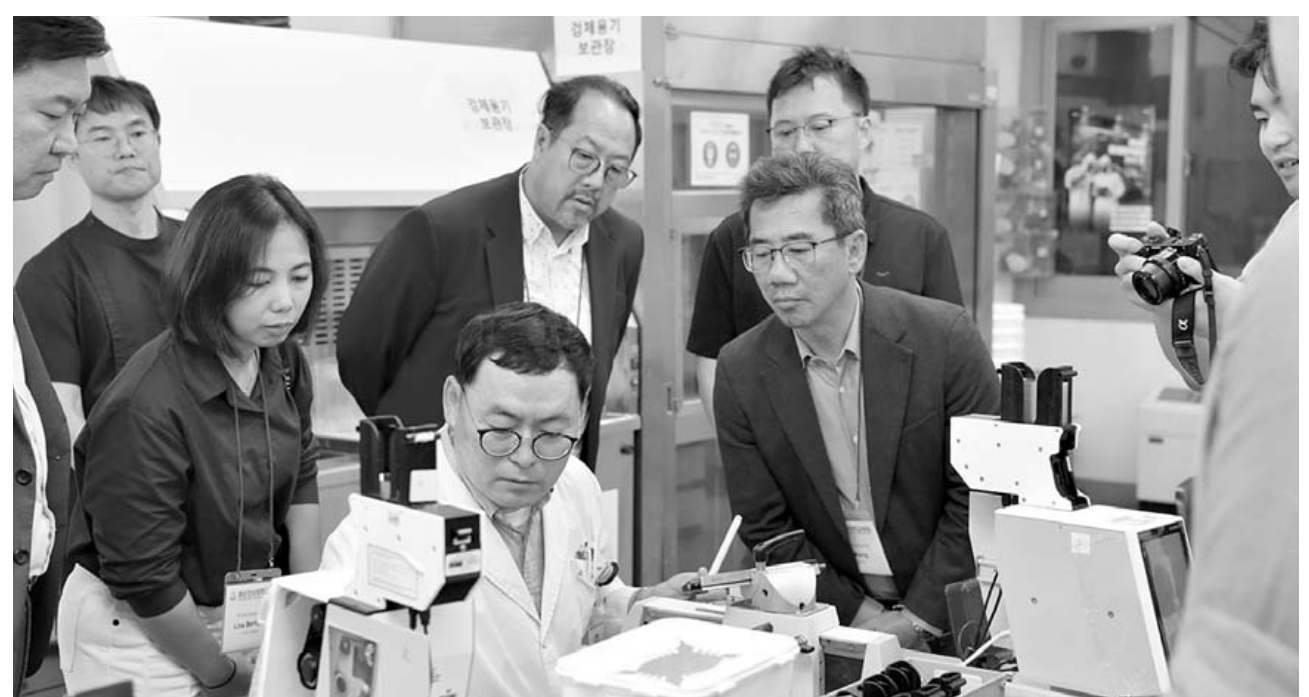
이번 2023년도 경영 평가는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재무예산 관리의 가장 경영 잘하는 국립대병원임을 증명

강조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SWOT 분석(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성과 창출 및 관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통한 7년 연속 무차입 운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관리 부문에서 호평 받았다.

연구사업은 유례없는 만점 등급(A+)을 받아 전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신 병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전 직원들이 헌신해 준 결과 '4년 연속 A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단지 경영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 전남대병원이 미래 의료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행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고남석 병리검사팀장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조직병리 등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선진 디지털 병리 시스템' 전파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5개국 17명 견학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전파했다.

9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7개 업체의 바이어 17명이 병원을 찾아 병리과 업무를 이해하고 최첨단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해외 바이어들이 화순전남

대병원의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바이어들은 접수부터 육안검사, 조직병리, 디지털 스캔, 판독실, 면역병리, 분자병리, 세포병리 등의 업무를 소개받고 병리과장인 이경화 교수를 소개받고 병리과장인 이경화 교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해외 바이어들은 병리과 곳곳을 돌며 견학이 진행되는 동안 "신세계다. 화순전남대

원의 선진화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며 연신 감탄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올해 초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구축하고 고화질 모니터에서 보이는 병리 영상을 통해 판독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 암 조기진단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경화 병리과장은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며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조선대병원 '2024년도 감염관리행사' 개최

조선대병원은 "최근 병원 분과 1층 중앙로비에서 '2024년도 감염관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손위생 체험행사 ▲환경관리(ATP TEST) 등을 진

행, 자칫 간과하기 쉬운 감염 예방 수칙을 되새겨보는 코너들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손위생 행사에서는 손씻기의 정확한 6단계 방법 및 직종별 행위별 손위생 시점에 대해 교육하고 설명을 확인하는 손위생 교육을 시행했다.

윤나라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감염관리 행사가 교직원 모두 경각심을 갖



고 감염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